

Habermas의 세 행동체계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단원의 학습목표와 활동과제 비교 연구

최성연* · 채정현**1)

*만정중학교 교사 · **한국교육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Focusing on the Learning Objectives and Activities

Choi, Seong-Youn* · Chae, Jung-Hyun**1)

**Teacher, Manjeong Middle School ·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etary life units of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 according to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and to find out how the three systems of action are reflected in the learning objectives and activity tasks of the textbook.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learning objectives and activity tasks of the dietary life units in the textbook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cs science' in Korea, and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in America using a content analysis technique based on Habermas's three systems of action. In analyzing the content, each learning objective or activity was matched with one of the three systems of action by examining the context. In some cases, two or more systems of actions were integrated in one activity. This is a case where a series of learning tasks that involve different action system were grouped into one.

The numbers of learning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unit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s of Korean high schools and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dietary life of American high schools were 3, 26, and 248, respectively. In Korean textbooks, the percentage of communicative action was highest among the three systems, that is, 66.7% for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50% for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s. In comparison technical action was the highest in American textbooks at 66.5%. Activities related to technical action included cooking, conducting research on health and food, or conducting experiments. The activities related to communicative action included role play related to health and table manners, or writing reports after conducting surveys or interviewing professionals. The activities related to emancipative action were to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such as service project in relation to health and food, or to find problems that occur in dietary life and think about the best solution through practical reasoning.

Key word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미국 교과서(American textbook), 세 행동체계(three systems of action), 식생활(dietary life), 하버마스(Habermas)

1) 교신저자: Chae, Jung-Hy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58, Fax: +82-43-231-4087, E-mail: jchae@knue.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와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의 성격에는 행복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술적, 의사소통적, 반성적(해방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세부목표에는 세 행동체계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교과역량으로 제시된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세 행동체계 즉,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창한 가정학의 사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정학의 사명을 “개인과 가족이 자아 형성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 목표와 수단을 비판하여 협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p. 23)으로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오하이오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유형을 채택하고 가정학의 사명인 행동체계 즉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의 세 가지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가정과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가정과교육은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을 포함한 행동 추론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중추적 과정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세 행동체계를 중요시 하고 있기에 세 행동체계가 교수·학습 과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비판과학관점의 세 행동체계를 더 먼저 도입한 미국의 가정과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분석하면 세 행동체계를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현하

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밝혀서 교실 수업은 물론 차기 가정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가정과교육에서 세 행동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정교과의 내용이나 목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Lee, & Cho, 2005; Oh & Chae, 2005; Ryu, Chong, & Chae, 1997; Yoo & Kim, 1997),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Ju & Yoo, 2015) 등이 있지만 세 행동체계를 준거로 어떻게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가정교과에서 식생활교육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온 역사성이 깊은 교육 영역이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변화를 겪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식생활 행동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사에 대한 가치관 확립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식생활의 비중이 크게 감소되어 식생활교육에 대한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Jang & Kim, 2018), 특히, 고등학교에서 일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 교과에서의 식생활 영역의 비중은 대폭 감소되어 있기에 식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가정교과에서 독립된 교과로써 식생활교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생활교육은 식생활과 관련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을 기르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Staland & Strom, 1996). 2015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도 식생활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식생활 문화가 개인과 가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론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MOE, 2015, p. 37).

끊임없이 변화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해 식생활에 대한 기능적 정보는 쓸모가 없어지며 학습자의 이성적인 행동을 이끌기에는 불충분하다. 개인과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는 기술적 행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를 통하여 학습 내용의 의미를 알고 가치와 신념을 갖기에 이에 대해서 조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생활교육 방안이나 개선 방향을 모색한 연구(Jeon, 2010; J. Kim, 2010; Kim, Jeon & Lee, 2010; Kim & Kim, 2010; Y. Kim, 2010), 식생활 단원 교과서 분석연구(Choi et al., 2018; Jang & Kim,

2018; Yang et al., 2015)와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연구(Choi & Chae, 2014; Choi & Ju, 2018; Kim & Chae, 2018) 등이 있지만 세 행동체계를 분석 준거로 하여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교과서는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이므로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세 행동체계가 어떻게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세 행동체계가 가정 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Habermas의 세 행동체계를 분석 준거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단원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에 따라 분석하여 세 가지 행동체계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세 행동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서 독립된 식생활 교과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식생활교육에서 가정교과의 사명인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Habermas의 세 행동체계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세 행동체계에 따른 행동의 유형, 학습경험을 구분하고 세 행동체계의 분석기준을 정한다.

둘째, 식생활 단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세 행동체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세 행동체계별로 식생활 내용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Habermas의 세 행동체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는 ‘인식과 관심’이라는 문헌에서 인간의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을 논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Habermas(1968/1987)는 모든 인식은 인식하는 주체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된다고 보았고, 인간의 관심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실천적 삶과 이론이 일치됨을 주장하였다. Habermas는 인간의 관심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영역에 대한 기술적 관심, 사회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사이의 상호행위 영역에 대한 의사소통적 관심, 인간의 실천적 삶에 대한 해방적 관심으로 구별되며, 이러한 인간의 관심에 서로 응하는 행동이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상호 간에 이해 도달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적 행동이라고도 하며, 해방적 행동은 자기반성을 통한 행동으로 반성적 행동이라고도 한다(Fox, 2007; Montgomery, 2008). Habermas는 이들 관심 중에서 해방적 관심에 따를 때 인식과 관심의 참된 통일(unity)이 이루어짐을 주장하였다(Seo, 2006). 이는 해방적 관심은 기술적 관심과 의사소통적 관심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변증법적인 관심이기 때문이다.

Habermas(1968/1987)는 인간에게 필요한 생존 조건을 노동과 상호행위로 보고 관심 영역을 노동과 상호행위로 구분하였고, 인간은 노동과 상호행위를 통해 삶을 재생산하며, 자기를 스스로 형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관심 영역에서 노동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다. 노동은 상호행위 영역과 구분되어 생물학적 삶의 목적을 필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므로 이전에 정해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목적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Habermas(1968/1987)는 이러한 기술적 행동이 나타난 사례를 자연과학에서 찾았고, 자연과학은 정신과학과 달리 사실에 대해 접근할 때 관찰을 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술적 관심에 의해 이끌리는 인식 유형은 경험·분석적 과학이다. 하지만 경험·분석적 과학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Habermas(1968/1987)는 의사소통적 관심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의사소통적 관심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관심 영역은 상호행위이다. 상호행위 영역은 인간들 사이의 상호교류의 영역으로 사회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언어의 규칙,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 행동으로 나타난다. Habermas(1968/1987)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 사례를 정신과학에서 찾았는데, 이는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사실에 대해 접근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적 관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관심을 인식적으로 실행할 때 정신과학과 같이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공유된 신념 또는 상호 이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유된 의미 그리고 가치 수단 및 목표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행동이다. 의사소통적 관심에 의해 이끌리는 인식 유형은 역사·해석적 과학이다.

한편, 경험·분석적 과학과 역사·해석적 과학은 각각 자연과 인간과의 원활한 교제를 수행하기 위한 관심에서 형성되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형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비판과 자기반성의 계기가 들어 있지 않기에 한계가 있다. Habermas(1968/1987)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방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해방적 행동은 ‘노동’과 ‘상호행위’의 영역에서 지배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의 왜곡된 자기 이해와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해방적 관심에 상응하는 행동이다. Habermas(1968/1987)는 해방적 행동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반성을 하는 정신분석학에서 해방적 행동의 논리를 찾아 해방적 행동은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기반성,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방적 행동은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에서 인식과 관심의 교류를 규제하는 일종의 초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의 세계 이해에서 비롯되는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Yoon, 2000). 해방적 행동은 삶을 이성적으로 반성하게 하며, 인간의 깨어있는 신념, 행동,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행동이며, 인간의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다. 해방적 관심에 의해 이끌리는 인식 유형은

인간의 실천적 삶의 맥락에 대해 비판적, 반성적 과정을 수행하는 비판과학에 해당한다.

2. Habermas의 세 행동체계 관점에 따른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과 식생활교육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 관점에서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세 가지 행동체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정생활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단원에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 기능, 가치 판단력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문제가 일어난 맥락 또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EHRD], 2007, pp. 13-14). 이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세 가지 행동체계의 명칭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천적 추론을 통해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2007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던 실천적 추론을 통해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의 일환인 자기 반성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전략에서는 교수·학습을 구성할 때 세 행동체계 즉,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자기 반성적 행동을 반영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MOE, 2015)은 기존의 교육과정에는 교수·학습 전략에 제시되어 있던 세 행동체계를 중학교의 성격과 세부목표에 교과 역량인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으로 제시하였고, 고등학교에는 성격과 세부목표에 제시하였다. 생활자립능력은 자연세계를 대상으로 한 노동 영역에서 자기 관리 및 생애 설계를 위한 기술적·목적적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기술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관계형성능력은 인간 사이의 상호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

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실천적문제해결 능력은 문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삶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해방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에는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평생에 걸쳐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해방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MOE, 2015, p. 31). 또한, 세부목표에도 “비판적 사고와 가치 판단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을 하도록 제시되었다”(MOE, 2015, p. 33).

고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식생활교육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 관점으로 살펴보면, 1차 교육과정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학습에서 지식, 사실, 조작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적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차 교육과정부터 점진적으로 협동 학습을 통해 학습하거나 식생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의사소통적 행동이 포함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식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해방적 행동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MEST, 2011)에서 식생활교육은 배려와 나눔의 식생활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 활동을 활용하도록 하고, 식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능력이 지속가능한 삶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해방적 행동을 유도하도록 되어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는 식생활 문화가 개인과 가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론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MOE, 2015, p. 37). 이를 통해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의사소통적 행동과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실천하는 해방적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과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가 가정과교육과정의 식생활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수·학습 방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과교육과정 비교

우리나라의 가정과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1955년 1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로 6차 교육과정까지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가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학’이라는 교과목명으로 심화선택, 진로선택 등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변화하였다. ‘기술·가정’은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이 통합되어 7차 교육과정부터 고시된 교과목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필수과목이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선택과목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는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기술·가정’의 내용 체계는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의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식생활과 관련된 영역은 ‘가정생활과 안전’에서 ‘생활문화’를 핵심개념으로 하여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가정과학’의 내용 체계는 ‘인간발달과 가족’, ‘자원관리와 생활문화’의 2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식생활과 관련된 영역은 ‘자원관리와 생활문화’에서 생활문화를 핵심개념으로 하여 ‘요리와 인류’, ‘생활습관병과 식이요법’, ‘푸드 디자인의 실제’, ‘식생활 관련 직업·진로 개발’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별로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1992년에 국가기준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1998년 첫 번째 Family and Consumer Sciences(FCS) 교육의 국가기준(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SAFACS], 1998)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 주, 지방 수준에서 FCS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후로 2008년 2판의 국가기준(NASAFACS, 2008a)은 FCS 교육을 위한 비전과 사명을 재확인하였고, 역량과 ‘과정 질문’을 강조하고, FCCLA(Family, Career and Community Leaders of America) 프로그램과 연계된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진로 클러스터와 21세기 기능과 연계를 추가하였다. 2018년 미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FCS 국가기준 3.0(NASAFACS, 2018)으로 제시하고 있다. FCS 국가기준 3.0(NASAFACS, 2018)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FCS 교육자들에게 프로그램 결과 확인을 위한 구조를 제공해주며, 16개의 학습 영역(Area of Study)별로 포괄적 기준(Comprehensive Standard),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 역량(Competencies),

과정 질문(Process Questions)을 포함하고 있다.

FCS 국가기준 3.0의 학습 영역은 ‘직업·지역사회·가족과의 관련성’, ‘소비자와 가족 자원’, ‘소비자 서비스’, ‘교육과 유아기’, ‘시설과 재산 관리’, ‘가족’, ‘가족과 인간 서비스’, ‘식품 생산과 서비스’, ‘식품과학·식이요법·영양’, ‘접대·관광·레크레이션’, ‘주택과 인테리어 디자인’, ‘인간발달’, ‘대인 관계’, ‘영양과 건강’, ‘육아’, ‘직물·패션·의류’ 등 16개이다. 이 중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영역은 3가지로 ‘식품 생산과 서비스’, ‘식품과학·식이요법·영양’, ‘영양과 건강’이다.

미국의 FCS 국가 기준은 주마다 다른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따라 운영되는데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19)의 경우에는 진로 클러스터 과정으로 여러 과목과 통합되어서 진로와 기술교육의 형태로 이루지고 있으며, 클러스터에는 농업·식품·천연자원, 건축과 구조, 사업 관리와 집행, 금융, 건강과학, 접대와 관광, 인간 서비스, 정보기술, 마케팅 등 16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육과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있다는 점, 세 가지 행동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의 선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과정 운영은 진로 클러스터나 FCCLA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각 영역에 대해서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뛰어넘어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은 과목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학교 공간 내에 국한되어 가정교과의 여러 영역을 모두 배우고 있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나라 한 출판사에서 집필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와 ‘가정과학’ 교과서이다. 교과서 선정 기준은 고등학교 ‘기술·가정’ 출판사와 동일한 교과서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판사별

로 저자와 교과서 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슷한 체제를 가진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과서와 ‘기술·가정’ 교과서가 출판된 곳은 천재 교과서 한 곳뿐이어서 ‘기술·가정’ (Lee et al., 2018), ‘가정과학’ (Choi et al., 2018) 교과서를 각 1개 총 2개의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최근에 출판되면서 구입이 가능한 교과서는 한 곳뿐이었다. 미국의 교과서 발행은 주별로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 등 상이하지만 North Carolina에서 가장 최근에 출판된 고등학교 교과서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Parnell, 2017)는 실천비판적 가정교육학이 발전한 미국 동부에서 출판되었으므로 세 행동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고등학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 교과서 1종씩이다. 각 1종을 비교 분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교과서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교과서의 식생활 단원 중에서 본문 내용을 제외하고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문 내용은 동일한 학습 내용이라든가 학습자가 어떤 활동과제를 수행하여 학습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행동체계의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분석기준 설정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세 행동체계에 따라 분석할 때 단순히 단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관심 영역, 활동과 행동의 유형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실에 접근하는지,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행동체계와 관련된 학습경험이 무엇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Table 1> 참조). 세 행동체계의 분석기준은 Habermas(1968/1987), Brown과 Paolucci(1979), Brown(1980), Fox(2007), Montgomery(2008), Coomer, Hittman과 Fedje(1997), NASAFACS(2008b) 문헌을 고찰하여 설정한 후 가정교육학 전공 교수 2인에게 타당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검토내용으로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기술적 행동이 의사소통적

Table 1. Three systems of action analysis criteria

Three systems of action	Technical action	Communicative action	Emancipative action
Analysis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or action • Productive activities • Natural science methods • A means or method for purpose • Focus on knowledge, facts, and operational functions • Demonstrations or experiments • Investigating or simply documenting already revealed information text • Lectures that explain natural scientific principles and concep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or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 Understanding the concept or meaning of humanities science •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history, culture, value, and meaning • Focus on expanding the depth and breadth of communication •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mutual understanding • Learning through discussion, role play, interviews, and case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ticism and correction of ideology that prevails in society • Criticism of social structure • Reflection on distorted self • Critical investigation • Social criticism,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good behavior • Questions about the reasons or preconditions for facts • Activities to set, apply, and evaluate objectives

행동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므로 단순히 개념을 조사하거나 문서화하는 것과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두어 의사소통의 깊이와 폭을 증대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였다.

기술적 행동은 학습 내용이 노동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자연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미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지식, 사실, 조작적 기능에 중점을 두거나, 시범을 보이고 실험을 한 내용이나, 이미 밝혀진 정보 텍스트를 조사하거나, 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단순히 문서화 하는 것, 자연과학적 원리나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를 통한 학습을 하는 경우 기술적 행동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학습 내용이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어 학습자 사이 또는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 이해를 하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인문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개념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을 하거나, 역사, 문화, 가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의 깊이와 폭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학습 내용이거나, 토론, 역할극, 인터뷰, 사례연구를 통한 학습을 하는 경우 의사소통적 행동으로 분석하였다.

해방적 행동은 학습 내용이 노동과 상호행위와 관련되어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시정하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비판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하거나, 왜곡되어있는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활동을 하고,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실천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선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 비판과 사회참여 활동을 하거나, 사실에 대한 이유나 전제 조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적용하여 평가하는 활동, 실천적 추론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해방적 행동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Habermas의 세 행동체계에 따라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기법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에 따라 범주화하여, 정리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객관적인 방법이다. 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에서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텍스트로 전사한 다음 학습 목표는 문장 단위로 활동과제는 학습 활동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분석단위로 만들었다. 내용을 분석할 때 문장을 통해 맥락 파악이 명확한 것을 해당 행동체계에 상응시켰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행동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활동과제가 연계되어 있어서 한 개로 묶여 있지만 학습 활동이 여러 가지로 되어있으면서 행동체계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조리법에 따라 디저트를 만들고 나서, 대체식품에 의해 제품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품 준비과정에서 설명한 조리 원리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활동은 디저트를 만드는 활동과 대체식품의 영향이나 조리 원리에 대해 토론을 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각각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의사소통적 행동이 통합되어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1차로 가정교육과 교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여덟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듭한 다음, 2차로 가정교육과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교과 내용학 전공 교수 3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아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서와 미국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분석의 개요

교과서 분석을 위한 개요를 설정하기 위해서 각 교과서의 분량과 식생활 단원의 비중, 식생활 단원의 학습 목표와 활동

과제 수를 산출하였고, 교과서의 구성, 식생활 단원의 체계를 비교하였다.

가. 교과서별 외형 체제 비교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223쪽으로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과목은 117쪽 분량이고 대단원은 ‘I. 결혼과 가족’, ‘II. 가정생활 문화와 안전’, ‘III. 가족의 자원관리와 자립’ 3개 단원으로 되어있었다 (<Table 2> 참조). 그중에서 식생활 단원의 비중은 7쪽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습 목표는 1개, 활동과제는 2개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학’ 교과서는 ‘기술·가정’ 교과서와 달리 207쪽으로 모두 가정과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단원은 ‘I. 생애주기와 가족 발달’, ‘II. 결혼과 가족 복지’, ‘III. 소비 생활과 가계 재무 설계’, ‘IV. 건강한 식생활과 푸드 스타일링’, ‘V. 패션 스타일링과 의류 마케팅’, ‘VI. 주생활과 주거공간 디자인’ 8개 단원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식생활 단원은 독립적인 대단원 30쪽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Table 2. Appearance system of the textbooks for analysis

Subject name	Technology &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science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School level	High school	High school	Grade level 9-12
Author(year)	Lee et al.(2018)	H. Choi et al.(2018)	Parnell(2017)
Total pages	117	207	649
Dietary unit pages (page number)	pp. 55-61(7)	pp. 104-133(30)	pp. 299-447(149)
The weight of dietary unit(%)	6.0	14.5	23.0
The number of learning goal in the dietary unit	1	7	59
The number of activity task in the dietary unit	2	19	189
Unit system	I. Marriage and family II. Family life culture and safety III.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self-reliance	I. Life cycle and family development II. Marriage and family welfare III. Consumer life and household financial design IV. Healthy dietary life and food styling V. Fashion styling and clothing marketing VI. Housing and residential space design	1. Career preparation 2. Resource management 3. Relationships 4. Parenting, child care, and guidance 5. Wellness and nutrition 6. Personal finance 7. Fashion and apparel 8. Housing and transportation

학습 목표 7개, 활동과제는 19개로 나타났다.

미국의 가정 교과서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는 모두 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649쪽 분량이었으며, ‘1. 진로준비’, ‘2. 자원관리’, ‘3. 관계’, ‘4. 부모됨과 아이 돌봄 및 지도’, ‘5. 건강과 영양’, ‘6. 개인금융’, ‘7. 패션과 의류’, ‘8. 주거와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식생활 단원은 ‘가정과학’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49쪽으로 2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습 목표 59개, 활동과제는 189개로 나타났다. 가정과학 교과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 분량상으로는 3배가 더 많았고 대단원의 내용에서는 부모됨과 아이 돌봄, 자원관리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었다. 또한, 식생활의 비중이 8.5% 더 많았고, 식생활 단원의 학습 목표는 8.4배, 활동과제는 9.9배 더 많았다.

미국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의 구성에서 차이점은 우

리나라 교과서는 학습목표나 성취기준을 도입에 제시하는 한편, 미국 교과서는 본문에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의 구성이 우리나라는 학습을 안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중점을 두어 코너가 다양한 한편, 미국 교과서는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방법과 21세기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중점을 두어 학습 목적에 맞게 코너의 유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무리 부분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미국은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교과서별 식생활 단원의 체계 비교

교과서별 식생활 단원의 체계를 살펴보면, <Table 3>에서 보듯이 기술·가정 교과서는 대단원 ‘II. 가정생활 문화와 안

Table 3. System of dietary life units by textbooks

Subject name	Unit	Chapter	Section
Technology & home economics	II. Family life culture and safety	1. Creation and practice of family life culture	1-1 Korean food and healthy dietary
Home economics science	IV. Healthy dietary life and food styling	1. Food culture and health	1-1 Understanding food culture 1-2 Life style disease and diet therapy
		2. Food styling	2-1 Understanding food design 2-2 Creative food styling
		3. Dietary life related job and career	3-1 Nutrition-related occupational world 3-2 Food-related occupational world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Unit 5. wellness and nutrition	Chapter 12. health and fitness	12-1 Your health and wellness 12-2 Your mental health 12-3 Health risks 12-4 Strategies for healthful personal development
		Chapter 13. nutrition	13-1 Nutrients work for you 13-2 Making daily food choices 13-3 Nutrition across the lifespan 13-4 Balancing calories and energy needs
		Chapter 14. selecting foods	14-1 Menu planning 14-2 Shopping decisions 14-3 Buying foods 14-4 Storing foods
		Chapter 15. food safety	15-1 Know your equipment 15-2 Safety and sanitation 15-3 Using a recipe 15-4 Cooking smart
		Chapter 16. food preparation	16-1 Cooking methods 16-2 Food presentation 16-3 Dining etiquette

전', 중단원 '1. 가정생활 문화의 창조와 실천' 중에서 1개의 소단원 '1-1 한식과 건강한 식생활'에서만 다루고 있었으며 한식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가정과학' 교과서는 대단원 'IV. 건강한 식생활과 푸드 스타일링'에서 3개의 중단원 '1. 식문화와 건강', '2. 푸드 스타일링', '3. 식생활 관련 직업과 진로'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술·가정'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점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가정과학' 교과서에는 생활 습관병과 식이요법, 푸드 스타일링, 영양과 식품 관련 직업의 세계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는 5개 중단원으로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영양, 메뉴계획, 식품 구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조리, 조리방법, 식사 예절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주로 식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미국은 식생활 문화뿐만 아니라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2. 교과서별 세 행동체계에 따른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교과서별로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수는 '기술·가정' 교과서는 3개, '가정과학'은 26개,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는 248개로 미국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각각 82.6배, 9.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지당 활동과제의 수를 계산했을 때, '기술·가정'은 0.28, '가정과학'은 0.63,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는 1.2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교과서의 활동과제는 미국 교과서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Habermas의 세 행동체계 분석기준에 따라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과서는 의사소통적 행동의 비율이 '기술·가정' 교과서 66.7%, '가정과학' 교과서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교과서는 기술적 행동의 비율이 6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의사소통적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술적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해방적 행동이나 세 가지 행동체계가 통합되어 나타난 활동과제가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는 없었으며, 기술적·해방적 행동, 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활동과제는 3.8%로 적게 나타났다. 미국 교과서는 해방적 행동 6.9%, 기술적·의사소통적 행동 4.0%, 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 2.0%, 기술적·해방적 행동 1.2%,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이 0.4%로 나타났다.

3. 세 행동체계별 식생활 단원의 내용

식생활 단원의 행동체계 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3종 교과서를 세 행동체계별로 분석한 다음, 중단원별로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식생활 단원의 내용은 <Table 4>

Table 4. The ratio of learning goals and activity tasks according to three systems of action in textbooks $\Lambda(\%)$

Systems of action	Textbook name	Technology &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science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Total
Technical action		1(33.3)	12(46.2)	165(66.5)	178(64.3)
Communicative action		2(66.7)	13(50.0)	47(19.0)	62(22.4)
Emancipative action		0(0.0)	0(0.0)	17(6.9)	17(6.1)
Technical & communicative action		0(0.0)	1(3.8)	10(4.0)	11(3.9)
Technical & emancipative action		0(0.0)	0(0.0)	3(1.2)	3(1.1)
Communicative & emancipative action		0(0.0)	0(0.0)	5(2.0)	5(1.8)
Technical, communicative & emancipative action		0(0.0)	0(0.0)	1(0.4)	1(0.4)
Total		3(100.0)	26(100.0)	248(100.0)	277(100.0)

에서와 같이 행동체계가 기술적·의사소통적 행동, 기술적·해방적 행동, 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통합된 행동체계는 묶어서 정리하였다.

가. 기술적 행동에 따른 식생활 단원의 내용

3종 교과서에서 기술적 행동에 따른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중에서 중단원별로 대표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기술적 행동과 관련된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내용으로는 음식을 만들거나, 건강이나 음식, 식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거나, 식사를 계획해보는 활동, 조리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조리, 안전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해보는 활동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한식을 응용한 음식 만들기, 우리나

라의 주식, 부식, 향신료 조사하기, 식생활 관련 직업의 종류와 특징 설명하기, 식생활 관련 진로 설계하기 등이 있었다. 미국 교과서에는 성병의 증상과 원인을 열거한 차트 만들기, 사춘기의 수면에 대한 정보 조사하기, 노인층의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저녁 식사 계획 세우기,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가금류 구입에 대한 결정하기, 자연 치즈 제조 과정을 조사하고 우유와 응고제의 종류에 따라 어떤 종류의 치즈가 나오는지 실험하기, 음식 조리, 안전기술을 시범 보이는 비디오 제작하기, 패스트푸드의 음식점의 메뉴를 비교·대조하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파스타의 익힌 정도에 따라서 발견된 차이점 서술하기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차이점은 조리 활동에서 우리나라는 음식을 만들어보거나 푸드스타일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조리하여 실험하고 시범을 보이는 비디오를 제작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Table 5. Contents of dietary life units according to technical action

교과서 구분	중단원명	내용
기술·가정	1. 가정생활 문화의 창조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 한식을 응용한 음식 만들기
	1. 식문화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으로 만나는 가정과학 속 역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 부식, 향신료 조사하기 GO! 활동 속으로: 가족의 생활습관을 관찰해보고, 건강 유지 방법 제안하기
가정과학	2. 푸드 스타일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깐!: 음식 사진을 찍고 푸드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분석하기 실습: 푸드스타일링의 꽃, 가니쉬로 푸드스타일링 해보기
	3. 식생활 관련 직업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 식생활 관련 직업의 종류와 특징 설명하기 학습 목표: 식생활 관련 직업의 요구 능력 알고, 체계적으로 진로 설계하기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12. Health and fi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st Century applications(10. Health literacy):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병(STI) 10가지 조사하고, STI의 각 증상과 원인을 열거한 차트 만들기 Core skills(11. Science): 웹사이트를 통해 사춘기의 수면에 대한 정보 조사하기
	13.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dership development: 모든 식품군의 식품 포함하여 노인층의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저녁 식사 계획하기 Portfolio builder: 'MyPlate' 웹사이트에서 개인 식사 계획을 생성하여 각 식품군의 섭취 권장량을 결정하고, 계획에 따라 경우 어떻게 유의한지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14. Selecting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re skills(12. Math): 2개 이상의 식품점에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가금류를 구입하기 위한 결정하기 Core skills(14. Science): 자연 치즈 만드는 과정을 조사하고, 각기 다른 우유와 응고제를 사용하면 어떤 종류의 치즈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15. Food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dership development: 음식 계량, 커팅, 혼합, 조리하는 기술을 연습하여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Portfolio builder: 주방 안전 및 위생 기술을 시범 보이는 비디오를 만들고, 포트폴리오에 요약을 포함시키기
	16. Food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st Century applications(10. Health literacy):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건강에 좋은 메뉴를 선택하여 비교·대조하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Core skills(14. Science): 파스타를 익힌 정도에 따라서 오래 익힌 것, 덜 익힌 것, 알덴테로 조리한 후 알덴테 파스타와 비교하고 발견된 차이점 서술하기

나. 의사소통적 행동에 따른 식생활 단원의 내용

<Table 6>에서 보듯이 보듯이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내용으로는 음식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거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 모듬별 푸드 스타일링 관련 회의를 하거나, 미래 직업에 대해 예측해보거나, 건강, 식사 예절과 관련된 역할극을 하거나, 직업 인터뷰나 설문 조사를 하여 결과를 작성하는 활동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한식의 장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한식의 우수성 이해하기, 식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발표하기, 미래 식문화에 대해 조별로 토의하기, 모듬별 푸드 스타일링 회의하기 등이 있었다. 미국 교과서에는 짝과 함께

방어기제 사용을 보여주는 역할극하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인터뷰하여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체중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여 학교 신문기사 작성하기, 영양사와 인터뷰하고 결과를 요약하여 학급과 공유하기, 레토르트 포장의 역사 조사하기, 쇼핑에 대한 소비자 설문하여 결과 작성하기, 음식의 조리·보관방법의 역사 조사하여 발견한 점을 공유하기, 식사 예절에 대한 역할놀이하고 상황에 대해 토의하기, 에티켓을 시범 보여주는 상황에 대해 다른 응답 확인하기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의 차이 점은 우리나라는 모듬별 활동을 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모듬별로 역할극,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보고 및 공유 등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Table 6. Contents of dietary life units according to communicative action

교과서 구분	중단원명	내용
기술·가정	1. 가정생활 문화의 창조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의 창: 기사를 읽고 한식의 장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 학습 목표: 한식의 우수성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의 식생활에 한식 접목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하기
	1. 식문화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깐!: 실생활 속에서 식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발표하기 • GO! 활동 속으로: 미래 우리나라 식문화를 예측해보고, 수준 높은 식문화 창조에 대해 조별로 토의하기
	2. 푸드 스타일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깐!: 모듬별로 푸드 스타일링 콘셉트 선정 회의를 하고, 결과 발표하기 • 잠깐!: 모듬별로 푸드 스타일링 콘셉트에 부합하는 푸드 스타일링 이미지 유형 선택하기
가정과학	3. 식생활 관련 직업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의 날개: 제시된 식생활 영역 중에서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예측하기
	12. Health and fi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e skills(12. Speaking, listening): 파트너와 협력하여 각 유형의 방어기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용을 보여주는 역할극 하기 • Portfolio builder: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하여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13.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e skills(17. Math, writing): 남·여의 체중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는 양식을 개발하여 결과를 집계·요약한 학교 신문기사 작성하기 • Core skills(21. Listenig): 질문 목록을 준비하여 영양사와 인터뷰하고 결과를 요약하여 학급과 공유하기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14. Selecting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e skills(16. Reading, history): 레토르트 포장의 전쟁, 우주 등에서 수행하는 역할, 역사 조사하기 • Core skills(18. Listening): 사람들이 왜 쇼핑을 하는지 소비자를 설문하여 알아보기. 설문지를 디자인하고 결과를 작성하기
	15. Food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tical thinking(3. Analyze information): 이 장의 정보가 어떤 직업에 도움이 되는지 학급에 공유하기 • Core skills(10. Reading, speaking): 현대 가전제품이 발명되기 전 음식 조리·보관 방법의 역사를 조사하여 발견한 것을 구두로 공유하기
	16. Food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tical thinking(6. Analyze behavior): 식사 예절의 부족을 보여주는 식사 상황 역할놀이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 토의하기. 적절한 예절을 사용한 역할놀이를 반복하기 • 21st Century applications(11.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파트너와 순서도를 만들고 올바른 에티켓을 시범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응답 확인하기

다. 해방적 행동에 따른 식생활 단원의 내용

해방적 행동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교과서는 중단원 '15. Food Safety'를 제외하고 모든 중단원에 17개의 활동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단원별로 대표적인 활동과제를 제시하면 <Table 7>과 같다.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는 주로 건강과 음식과 관련하여 봉사프로젝트 등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나, 현대사회의 식생활 현상에 대해 비판적 질문에 답하는 활동이나,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식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 실천적 추론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사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환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연구하기, 자원교육 봉사 프로젝트 실천하기, 운동선수와 코치와의 갈등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방안 추론하기, 미국의 비판 보고서를 공부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연구하기, 섭식장애를 가진 친구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해결방법 작성하기, 식사 관리 기술이 중요한 이유와 메인요리로 고기 대체품이 점점 인기가 있는 이유 생각하기, 식사 예절이 다른 상황에서 행동 결정하기, 식사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목록을 작성하여 대처방법을 서술하고 성찰

보고서 작성하기, 음식점에서 일하는 지역사회 봉사프로젝트에 지원하여 배운 점과 장·단점 쓰기 등이 있었다.

라. 통합된 행동체계에 따른 식생활 단원의 내용

통합된 행동체계에 우리나라 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에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이 통합된 활동과제로 단 1개뿐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교과서는 모든 중단원에 19개의 활동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단원별로 대표적인 활동과제를 제시하면 <Table 8>과 같다. 기술적·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는 푸드 스타일링이나 조리를 하거나,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피트니스 활동을 조직하거나, 채소 요리 계획을 세운 후에 학급과 함께 공유하거나 토론, 분석·평가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푸드 스타일링을 하고, 짝과 공유하여 서로의 푸드 스타일링 분석·평가하기, 피트니스 활동 계획을 세우고 학급과 공유하기, 영양가 있는 채소 요리 계획을 세우고 학급과 요리, 구매목록, 구매법 공유하기, 대체식품으로 동일한 디저트를 만들어 대체식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리 원리에 대해 토론하기, 음식 준비 기술 사용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제작하고 학급과 공유하기 등이 있었다.

기술적·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는 현재의 식생활

Table 7. The contents of the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textbook on dietary life according to the emancipative action

중단원명	내용
12. Health and fi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st Century applications(6. Environmental literacy): 지역사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연구하기 • Leadership development: 지역사회 보건 박람회에서 지역사회 회원에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교육 봉사 프로젝트 실천하기 • Journal writing: 운동선수와 코치와의 갈등 원인을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추론하기
13.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tical thinking(5. Analyze trends): 미국의 비판에 관한 보고서를 연구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연구하기 • 21st Century applications(10.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섭식장애를 가진 친구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해결방법 작성하기
14. Selecting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tical thinking(1. Draw conclusions): 식사 계획 중 식사 관리 기술이 중요한 이유 생각하기 • Critical thinking(2. Analyze trends): 메인요리로 콩과식물 등 고기 대체품이 인기 있어지는 이유 생각하기
16. Food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tical thinking(3. Evaluate decision): 외국을 방문해 식사 예절이 나와 다를 경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내가 주최자(host)라면 외국인이나 나와 다른 식사 예절을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Portfolio builder: 식사 시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장의 정보를 사용하여 상황별 대처방법 서술하기.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 Journal writing: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음식 서비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 장·단점, 이 실천으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 쓰기

Table 8. Contents of dietary life units according to the integrated systems of aciton

행동체계	중단원명	내용
기술적·의사소통적 행동	2. 푸드 스타일링	• 대단원 마무리: 자신이 직접 푸드 스타일링한 음식 사진을 찍과 공유하고, 서로의 푸드 스타일링을 분석·평가하기
	13. Nutrition	• 21 st Century Applications(9.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미국인을 위한 신채 활동 지침을 사용하여 정보 조사하기. 에어로빅, 근육·뼈 강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피트니스 활동을 조직하고, 워밍업 시간과 친구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고, 학급과 공유하기
	14. Selecting foods	• 21 st Century Applications(6.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제철농산물, 식당 재고 목록, 채소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채소 요리 계획하기. 구입 전 채소의 유형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학급과 요리, 구매 목록, 구매 팁을 공유하기
	15. Food safety	• Core skills(13. Science): 식품과 대체식품으로 동일한 디저트 만들어 모양, 풍미, 질감 비교하기. 대체 식품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품 준비과정에서 설명한 조리 원리에 대해 토론하기
	16. Food preparation	• Core skills(16. Speaking): 파트너와 함께 음식 준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음식 준비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디오 제작하기. 단계별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안전과 위생을 포함시키고, 비디오를 학급과 공유하기
기술적·해방적 행동	14. Selecting foods	• Journal writing: 가족의 평상시 쇼핑 목록 분석하기. 가족의 높은 식품 비용을 차지하는 것을 파악하고, 영양소와 편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만들 방법을 쓰기
	15. Food safety	• Critical thinking(4. Assess safety and sanitation): 학교의 식품 실험실, 가정의 주방에서 안전·위생 점검 실시하기.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위생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	13. Nutrition	• 21 st Century applications(6. Global awareness): 깨끗하고 순수한 음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이런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기. 깨끗하고 순수한 음용수를 제공할 때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발견한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급과 공유하기
	16. Food preparation	• Leadership development: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매너에 대한 기본 교육 개발하기. 역할놀이 등을 활용하여 행동 기반으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시각적인 조언을 포함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교육 내용을 실천하게 돕기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	12. Health and fitness	• 21 st Century applications(9.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팀을 구성하여 건강 위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10대들의 관심을 줄이기 위한 광고 캠페인 계획하기. 스캐너, 드로잉 소프트웨어, 컬러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포스터, 범퍼 스티커, 티셔츠, 계시판, 광고 디자인하기

상태를 점검하거나 분석을 한 후, 이를 반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의 평상시 쇼핑 목록을 분석하고, 가족의 높은 식품비를 차지하는 것을 파악하고 영양소와 편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만드는 방법 쓰기, 학교 실험실과 가정에서 주방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과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등이 있었다.

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학급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음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여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고,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학급과 공유하기, 역할놀이 등을 활용하여 매너에 대한 기본 교육을 개발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교육 내용을 실천

하도록 돕기 등이 있었다.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는 3종 교과서 중에서 단 1개로 나타났다. 모듈별로 팀을 구성하여 건강 위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10대들의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었다. 이는 모듈별 활동을 통해서 더 깊은 의사소통을 이끄는 의사소통적 행동과 포스터, 범퍼 스티커, 티셔츠, 계시판, 광고 디자인을 해보는 기술적 행동과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여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여 선한 행동을 이끄는 해방적 행동이 통합되어 있었다.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세 가지 행동체계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서와 미국 고등학교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교과서의 쪽수, 식생활 단원의 비중, 단원체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쪽수는 각각 117쪽, 207쪽, 649쪽으로 미국 교과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의 비중은 ‘기술·가정’ 6.0%, ‘가정과학’ 14.5%,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23.0%로 나타났고, 식생활 단원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수는 각각 3개, 26개, 248개로 나타나 미국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수는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단원의 체제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한식 문화와 건강, 푸드 스타일링, 식생활 관련 직업과 진로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미국 교과서는 건강, 영양, 메뉴계획, 식품 구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조리, 조리방법, 식사 예절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차이, 교과서 구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의 필수 이수 단위는 제 2외국어와 한문과 교양과목을 합하여 16시간, ‘가정과학’을 선택할 경우 기본 단위 수는 5단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이수 단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교과서의 분량도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별로 다르며 이수 단위의 제한이 없으며, 교과서 발행이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 등 주별로 상이하다. 교과서의 구성도 우리나라는 평가에 중점을 둔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에 참여해보는 활동 위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시수, 교과서 발행 제도의 차이로 인해 제한된 환경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활동과제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페이지당 활동과제의 수를 계산

했을 때, ‘기술·가정’은 0.28, ‘가정과학’은 0.63,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는 1.2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교과서의 활동과제는 미국 교과서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가정 교과서에서는 세 행동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과제나 과정 질문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미국의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교과서는 기술적 행동의 비율이 6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적 행동 19%, 해방적 행동 6.9%, 기술적·의사소통적 행동 4.0%, 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 2.0%, 기술적·해방적 행동 1.2%,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행동이 0.4%로 나타났다. 기술적 행동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식생활 단원의 내용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의 영역으로 세 가지 관심(기술적 관심, 의사소통적 관심, 해방적 관심) 중에서 기술적 관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도 가정학 초기에는 가정학을 자연과학의 일부로 여기면서 식생활을 과학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를 통해 지식에 단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가정학의 정체성은 노동 영역에 고정되게 되었다(Vincenti, 1993). 이에 가정교과의 통합적 접근인 Habermas의 ‘인식과 관심’에 기초한 비판과학 패러다임이 대두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서는 유사하게 의사소통적 행동이 각각 66.7%,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방적 행동은 없었고, 행동체계가 통합된 활동과제는 1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하버마스의 세 행동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교과서에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교실 현장에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 교과서에 해방적 행동을 포함하여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1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가정교과서 전체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과 교육에 해방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기술적 행동체계의 순으로 요구한 Yoo와 Kim(199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특히, Yoo와 Kim(1997)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해방적 행동체계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든 해방적 행동에 대한 학습 활동이 식생활 단위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교과서에서 가정과 교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방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교육과정은 물론 교과서 전반에서 세 행동체계를 활용한 학습경험을 조직하고 구성하여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를 수업에서 실행하여 학생들이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 행동체계별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우리나라와 미국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기술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우리나라는 음식을 만들어보거나 푸드스타일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조리·실현, 비디오 제작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우리나라는 모둠별 활동을 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모둠별로 역할극,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및 공유 등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우리나라는 없었고, 미국은 건강과 음식과 관련하여 봉사프로젝트 등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나, 현대사회의 식생활 현상에 대해 비판적 질문에 답하는 활동이나,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식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 실천적 추론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미국 교과서에서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주로 학습의 범위를 개인과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나 비판해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가정과 식생활 단위 교과서에서도 학습의 범위를 개인과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까지 넓혀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에 대한 활동과제를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우리나라 가정과 교과서의 식생활 단위 집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동체계가 통합된 활동과제들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이 통합된 활동과제 1개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세 행동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행동체계와 관련된 학습 활동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학습 내용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정관념들에 대해 모둠별 토의·토론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학급에 공유하며, 토론을 통해 발견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의사소통적 행동과 해방적 행동을 유도하고, 해결방안을 행동에 옮겨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법을 연마하여 기술적 행동을 통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문제를 이해하고, 기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실천적 추론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선택하여 행동에 옮기고 이를 평가해 보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과정(Laster, 1982)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생활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문제로까지 넓혀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식습관을 반성해보고, 이를 사회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활동과제와 과정 질문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부터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세 행동체계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세 행동체계가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교과서에 제시된 세 행동체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2025년 고교학점제를 앞둔 상황에서 가정교과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교과에 가정학의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도록 세 행동체계가 포함된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식생활 단원에 국한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서 각각 1종을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규명해 보고, 식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교과의 타영역에서 세 행동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가정과교육과정을 세 행동체계에 따라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힌 세 행동체계와 관련된 활동과제를 바탕으로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는 식생활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후속연구로 이어지길 제안한다.

참고문헌

- Brown, M. M.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Minneso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hoi, H. J., Kim, K. H., Kim E. J., Hong, E. J., Kwon, H. S., & Kwon, Y. M. (2018). *고등학교 가정과학 [High school home economics science]*. Seoul: Chunjae textbook.
- Choi, S. E., & Chae, J.-H. (2014). Development of smart education-based teaching and learning plans and a smart textbook for 'healthy diet and meal plans' unit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6(4), 85-114.
- Choi, S., & Ju, S. (2018). Development teaching-learning plan for 'food and nutrition unit' of home economics based on backward design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30(3), 175-193. doi:10.19031/jkheea.2018.09.30.3.175
- Choi, S.-Y., Lee, Y.-S., Choi, Y.-J., Joo, H.-J., Kim, S.-H., & Park, M.-J. (2018). Analysis of activities task using multiple intelligence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3), 19-42. doi:10.19031/jkheea.2018.09.3.03.19
- Coomer, D., Hittman, L., & Fedje, C. (1997). Questioning: A teaching strategy and everyday life strategy. In J. Laster, & R. Thomas (Eds.), *Thinking for ethical action in families and communities* (pp. 173-183).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eacher Education Yearbook 17*). Peoria, ILL: Glencoe/McGraw-Hill.
- Fox, W. S. (2007). *Process framework for the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nasafacs.org/process-frameworks.html>
- Habermas, J. (1987).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J. J. Shapiro, Trans.). Malden, MA: Pol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Jang, Y.-M., & Kim, Y. K. (2018). Content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unit in middle school textbooks of home economics: focus on the national curriculums from 1st to 2009 revise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30(4), 93-112. doi:10.19031/jkheea.2018.12.30.4.93
- Jeon, S. K. (2010). Educational meanings and effective practical plans of school dietary lif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1), 117-135.
- Ju, S., & Yoo, T. (2015). Integrative home economics curriculum development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through deliber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4), 447-461.
- Kim, J.-H. (2010). Studies inquiry on school dietary education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3), 189-203.
- Kim, J. H., Jeon, S. K., & Lee, M. J. (2010). A study of integrated dietary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extbook and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II)- Part 2: Application of Integrated Dietary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4), 1-18.
- Kim, J.-H., & Kim, Y.-K. (2010).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and middle school die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4), 1-13.
- Kim, Y.-H. (2010). A study on the needs of dietary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4), 77-90.
- Kim, Y.-J., & Chae, J.-H. (2018).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s applied problem based learning focusing on 'food and nutrition' unit: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30(2), 39-56.
- Laster, J. F. (1982). A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74(3), 41-44.
- Lee, C. S., Song, J. W., Kwon, H. S., Yoon, Y. J., Kim, D. N., Kim, J. W.,...Kwon, Y. M. (2018). *고등학교 기술·가정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Seoul: Chunjae textbook.
- Lee, H.-J., & Cho, J.-S. (2005). Importance of objectives of housing unit in home economics by three systems of ac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7(4), 117-131.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Notice No. 2007-79 [separate 10].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Notice No. 2011-361 [separate 10].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 Informatics curriculum]*. Notice No. 2015-74 [Separate 10].
- Montgomery, B. (2008). Curriculum development: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6(National Teacher Standards 3). Retrieved from <http://www.natefacs.org/Pages/v26Standards3/v26Standards3Montgomery.pdf>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SAFACS). (1998).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Decatur, GA: Vocational-Technical Education Consortium of States.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SAFACS). (2008a). *National standard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nd ed.). Decatur, GA: Vocational-Technical Education Consortium of States.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008b). *National standards for FCS reasoning for action framework, standards & competencies, and process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www.nasafacs.org/uploads/1/8/3/9/18396981/process_framework_2019.pdf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018).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tional standards 3.0*. Retrieved from <http://www.nasafacs.org/national-standards-overview.html>
-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19). North Carolina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pi.nc.gov/districts-schools/classroom-resources/career-and-technical-education/curriculum>
- Oh, Y. H., & Chae, J. H. (2005).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family value and needs on leaning objective of family life area according to the three systems of 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7(2), 239-255.
- Parnell, F. B. (2017).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Foundations of human studies, 11 Edition*. Wilmington, NC: The Goodheart-Willcox Company, Inc.
- Ryu, H. R., Chong, Y. S., & Chae, J. H. (1997). A study needs perception toward education purposes of 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6(1), 111-127.
- Seo, D. S. (2006).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Philosophy and Thought.
- Staaland, E., & Strom, S. (1996). *Family, food, and society: A teacher's guide*. Madison, WI: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Vincenti, V. B. (1993). Professional identity: Interferences within. In E. P. Anderson, & V. L. Clark, (Eds.). *Marketing home economics: Issues and practices* (pp. 41-62). Yearbook 13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Peoria, IL: Macmillan McGraw-Hill.
- Yang, S. J., Chae, J. H., Yu, N. S., & Park, M. J. (2015). The analysis of duplicated contents of 'food and nutrition unit'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7(1), 31-50. doi:10.19031/jkheea.2015.03.27.1.31
- Yoo, N. S., & Kim, Y. N. (1997). Teacher's needs assessment on food/nutrition of secondary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ree systems of 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9(1), 83-94.
- Yoon, P. J. (2000).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Beyond Foucault and Habermas]*. Seoul: Kyobo Bookstore.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등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단원을 Habermas의 세 행동체계에 따라 분석하여 세 가지 행동체계가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정과학’, 미국 고등학교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교과서에서 식생활 단원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를 Habermas의 세 행동체계를 기준으로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장을 통해 맥락 파악이 명확한 것을 해당 행동체계에 상응시켰다. 분석과정에서 한 개로 묶여 있지만 학습 활동이 여러 가지로 되어있으면서 행동체계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행동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서와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 ‘Succeeding in life and career’ 식생활 단원의 학습 목표와 활동과제 수는 각각 3개, 26개, 248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의사소통적 행동의 비율이 ‘기술·가정’ 교과서 66.7%, ‘가정과학’ 교과서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교과서는 기술적 행동의 비율이 6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건강이나 음식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거나, 조리 실험 등이 있었다. 의사소통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건강, 식사 예절과 관련된 역할극을 하거나, 직업 인터뷰나 설문 조사를 하여 결과를 작성하는 활동 등이 있었다. 해방적 행동과 관련된 활동과제들은 건강과 음식과 관련하여 봉사프로젝트 등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나, 식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찾아 실천적 추론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있었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2월 22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3월 24일